

2017 새 설계

김 상 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애로 개선…일하기 좋은 광주 최선”

인사·세무 등 실무 중심 교육 실시
경제동향 정보 제공·해외 진출 독려
전문인력 육성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우리 지역이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콘텐츠 미래 신 산업 중추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열(56)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품격 사회 진입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미래신사업 육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회원기업 서비스 확대를 경영활동 지원 강화 ▲정부·지자체 수입사업 확대 및 내실화 ▲지역 지원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청의적 사업 발굴 ▲재정 자립기반 제고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현안 및 업계의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발전 정책기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우리 지역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광주상의 위상정립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회원 기업 서비스 확대와 경영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경영과 인사, 세무·회계 등 실무중심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사전 조사해 적기에 실시하고 각종 경제 포럼과 세미나,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경제동향을 회원사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구체적으로 광주은행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회원사 금융지원사업,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와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더욱 알차게 전개하고 회원업체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포상 추천과 회원기업 임·직원 가족 역사탐방 등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회원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수입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종합경제단체로서 위상제고와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올해도 인적자원개발위원

회 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사업, 지역제품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지역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회비 증강운동(Jump 2030)’의 지속 추진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 상의 주요사업 홍보를 통한 회원사 회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수익사업으로 각종 무역관련 증명발급 업무와 공인인증서 등록 대행 업무를 지속 추진해 상의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역외유출로 소외와 낙후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김 회장은 기업인들이 솔선수범해 광주·전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남겼다.

김 회장은 “장기불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면한 지역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신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공인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육성과 지역 인재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을 발하고 비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뿌리가 깊어진다”며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 주체 모두가 협력하고, 창조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성 출신으로, 2015년 제49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과 2015년 통합경영학회 창조경영자상을 수상했으며 호반건설 회장과 KBC광주방송 회장,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6.16 (-0.30)

금리 (국고채 3년) 1.64% (0.00)

↑ 코스닥 632.04 (+0.60)

↑ 환율 (USD) 1208.00원 (+0.30)

자영업 하루 2천곳 사라진다

서비스·음식·부동산·소매업종 74% 몰려…생존율 30%

수도권 집중…창업 벽 높아져

신규 사업자 수도권(52.5%)으로만 몰리고, 창업을 한 세 명 중 한 명가량만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기 침체로 신규 창업의 벽도 더욱 높아졌다는 말이다.

2일 국제통계기 발간한 ‘2016 국제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15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19만1000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과반수가 넘는 52.5%(62만5000)가 분포되어 있다. 신규사업자의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았고, 광주(3만3400), 전남(93만7484)은 세종(9513), 제주(2만237), 울산(2만4307)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신규사업자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 보니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도 많지 않았다. 지난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9000개였고, 이중 57.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광주(1만2773)과 전남(1만9413)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또 2014년 창업해 2015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전국 10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보면 2014년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롭게 자영업자를 차린 셈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었다. 매일 2000명씩 사업을 접었고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



분의 1만 살아남은 꼴이다.

신규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14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 등 4가지 업종에 73.5%가 몰려 있었다. 세탁소, 이·미용실, 교육알선, 여행사, 교육기관 운영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20만9000명(19.6%) 신규 등록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재호기자 lion@



방문 없이 모바일 대출

광주은행 ‘솔솔한 개인신용대출’ 출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현)은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My CoolBank)앱에 모바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솔솔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솔솔한 개인신용대출’은 무직자(신용등급 1~7등급) 또는 직장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대출상품 중에서 고객이 비교분석 후 선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신용등급과 재직여부에 따라 금액과 금리를 제시해주고 고객이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없이 한도 조회가 가능하고, 직장인의 경우 서류 없이 소득증빙이 가능하도록 해 대출신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스마트폰을 평상시 활용하던 고객이라면 1분 안에 한도조회 및 5분 안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

새 얼굴

“개발 후보지 발굴로 경기 활성화”

이 정기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고객중심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일자로 취임한 이정기(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행복마을권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 개발후보지 발굴에도 적극 나서 잠재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에 총력을 기

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 본부장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 공학과,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분사 영향평가담당, 광주전남 주거복지사업담당, 건설사업담당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

謹賀 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제2의 윤산경제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이후이(死而後已)의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산시 직원 일동